(765)

조선

주체109
(2020)
4

차 례

표지: 려명거리의 불야경 사진 홍광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월말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대렬과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당면한 정치, 군사, 경제적과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 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당중앙의 분석과 립장에 대하여 천명하시고 모든 당일군들과 당조직들이 자기자신들과 자기 단위들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것이 시급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을 비롯한 련관기관들은 전염병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취해진 선제적이며 강력한 수준의 방역대책들의 경험에 토대하여 시급히 나라의 방역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단과 체계, 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사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행동실천에 옮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 건설정책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글 김선경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 일떠서게 되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3월 1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건설되는 평양종합병원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진활로를 열어나가시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건설지휘성원들, 건설자들과 함께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결정한데 따라 당중앙이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건설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모두가 무병무탈하고 문명생활을 누리면 우리 당에 그보다 더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평양시안에 안과병원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

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이제 우리는 모든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보건을 인민적인 보건으로, 선진적인 보건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짚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보건부문을 추켜세우는 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정치적 문제,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병원건설과정에 창조되는 결사관철의 정신, 건설속도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 파급되게 하려는것이 당의 기본의도라고 천명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을 전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증진시키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당창건 75돐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건은 어렵고 난관은 많지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하고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자각들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공사과정에 부닥치는 난관들을 능히 극복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따라 건설의 대번영기를 앞장에서 펼쳐오는 나날에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당창건 75돐을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완공으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겹쌓인 애로와 격난을 뚫고 수도의 한복판에 솟아오르게 될 평양종합병원은 적대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짓부시며 더 좋은 래일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굴함없는 형세를 그대로 과시하는 마당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두다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자기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힘차게 투쟁하여 바로 이 자리에다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륭하게 일떠세우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이 어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새로운 주체100년대와 더불어 더욱 뜨겁게 펼쳐가시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격정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순간 평양종합병원착공을 알리는 첫 발파의 폭음이 장쾌하게 울려퍼졌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창건 75돐을 맞으며 평양종합병원을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인민관이 완벽하게 구현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울 열의로 가슴불태우며 공사에 전격진입하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월 28일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기동과 화력타격능력을 판정하고 군종합동타격의 지휘를 숙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여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는 군종부대들과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전투력에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체 인민군군인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고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일에 이어 3월 9일 또다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훈련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작전동원준비상태가 완벽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시에 따라 감시소에서 포병화력을 직접 지휘한 군단장들의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포성이 울부짖고 목표섬은 순간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의에 조직진행된 군단별 포사격대항경기에 참가한 용감한 포병들의 전투적열의와 자세에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포병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실전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훈련요구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부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0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제3군단, 제4군단, 제8군단관하 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서부전선포병부대들은 평시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포사격술로 경기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실전에 대비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자기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부전선의 포병들, 특히는 3군단의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만족해하시며 마치도 저격무기로 목표판의 점수를 맞히는것만 같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3군단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하여 너무도 만족하시여 포사격경기에서 놀라운 포사격술을 보여주며 경이적인 성적을 받은 제3군단관하 포병대대에 수여되는 명포수상장에 **《대대의 놀라운 전투력에 탄복한다. 대단히 만족하며 특별감사를 준다. 김정은. 2020. 3. 20》**이라는 뜻깊은 축하친필을 새겨주시였다.

글 리미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주체109(2020)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포사격경기에서 놀라운 포사격술을 보여주며 경이적인 성적을 받은 포병대대에 수여되는 명포수상장에 뜻깊은 축하친필을 새겨주시였다.
주체109(2020)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시였다.

시범사격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범사격구령을 내리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속에 주체탄들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발사되였다.

발사된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우리 식 무기체계들의 련속적인 출현은 우리 국가무력의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며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정확한 자립적국방공업발전로선과 국방과학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고 우리의 국방과학, 국방공업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 국방과학연구부문들의 임무와 군수공업부문의 새로운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글 김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70성상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며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기를 두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30대에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의 해방(1945. 8. 15.)을 안아오신 그이께서는 40대에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한평생 자주성을 지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그이께서는 고귀한 생애의 전기간 많은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각계인사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수많은 나라와 국제기구, 단체들로부터 370여개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받으시였다.

그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세계의 많은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에서 그이께 삼가 드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도 있다.

글 김선경

금별훈장과 증서
주체76(1987)년 4월 14일
웰남

평화금별훈장과 증서
주체96(2007)년 1월 18일
몽골

우마야큰띠훈장과 증서
주체63(1974)년 9월 25일
수리아

레닌훈장과 증서
주체76(1987)년 4월 14일
쏘련

칼 맑스훈장과 증서
주체76(1987)년 4월 15일
도이췰란드

별훈장 제1급과 증서
주체71(1982)년 4월 9일
로므니아

천붕우리민족대십자훈장과 증서
주체67(1978)년 6월 15일
르완다

영예의 큰별훈장과 증서
주체74(1985)년 11월 10일
에티오피아

대십자민족훈장과 증서
주체65(1976)년 5월 18일
말리

호쎄 마르띠훈장과 증서
주체71(1982)년 4월 13일
꾸바

아우구스또 쎄싸르 싼디노 훈장과 증서
주체75(1986)년 8월 25일
니까라과

국가금별메달과 증서
주체81(1992)년 2월 3일
라오스

게오르기 지미뜨로브탄생 100돐 기념메달과 증서
주체72(1983)년 1월 28일
벌가리아

우아우라주 우아쵸시 명예시민메달과 증서
주체88(1999)년 11월 26일
뻬루

조선과의 친선협회 메달 1급과 증서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세기의 위인》 증서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스리랑카

드골생일 100돐 기념메달
주체79(1990)년 10월 6일
프랑스

빠도바종합대학 금메달
주체76(1987)년 7월 30일
이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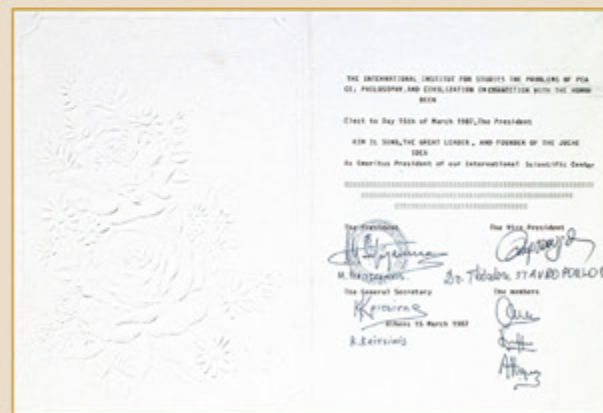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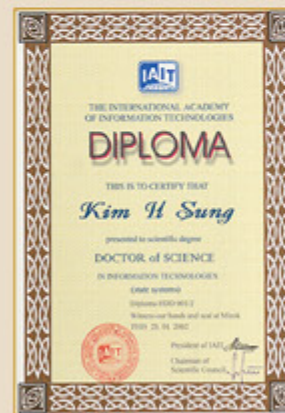
마드리드시의회금메달
주체81(1992)년 7월 28일
에스빠냐

국회메달
주체76(1987)년 4월 17일
베네수엘라

적십자국제위원회
창립 125돐 기념메달
주체81(1992)년 9월 17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메달
주체71(1982)년 4월 8일

유엔메달
주체68(1979)년 5월 3일
유엔

켄징톤종합대학 명예국제관계학박사증서
주체75(1986)년 11월 25일
미국

국제과학쎈터 명예위원장증서
주체76(1987)년 3월 15일
그리스

국제정보공학아까데미야 원사증서, 정보공학박사증서
주체91(2002)년 1월 23일
벨라루씨

리에데께르끄시 명예시민증서, 띠
주체76(1987)년 4월 23일
벨지끄

년대를 이어 펼친 친선의 무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비록 력사는 길지 않아도 세계 많은 나라의 문화예술인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주체71(1982)년 4월 조선혁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온 수많은 나라의 예술인들이 4.15경축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친선음악회를 진행한것이 축전이 시작된 계기였다.

주체73(1984)년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명명되여 해마다 진행되여오다가 주체96(2007)년이후부터 2년에 한번씩 열리고있다.

크게 음악, 무용부문과 교예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는 축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과 국제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이 참가하고있다.

축전은 나라별, 단체별, 종류별, 종합, 련환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축전심사는 해당 부문의 권위자들로 조직된 심사위원회와 관중들에 의하여 진행되며 우수하게 평가된 단체들과 개별적인 예술인들을 평가하고 시상한다.

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아래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고 문화적교류를 강화하여 인류음악예술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유럽의 한 예술단단장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내가 본 모든 축전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조선의 봄축전은 순위를 위한 축전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이 넘치는 축전, 5대륙의 예술인들이 모두 모여 한가정을 이룬듯싶은 친선단결의 축전이라는데 자기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말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강수정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칭송한 노래들과 함께 자기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애,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정서를 반영한 예술종목들을 축전무대에 올렸다.

여러 나라 교예배우들의 공연은 관중들의 절찬속에 진행되였다.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이 솟아있는 량강도 삼지연시가 완전히 변모되였다.

삼지연지구는 지난 세기 전반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전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도 여기에 있다.

오랜 세월 궁벽한 두메산골이였던 이 일대는 1960년대초에 새 행정구역(삼지연군)이 나온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2년전 읍(당시)지구에 있던 근 200동의 낡은 건물들을 들어내고 수백정보의 부지에 4 000여세대의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380여동의 공공 및 산업건물을 신설 및 개건하여 옹근 하나의 도시를 일떠세우기 위한 전면적인 건설공사가 개시되였다.

공사과정은 도시구획형성과 건축에서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산간문화도시의 전형, 본보기를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사는 지난해말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으며 이곳 인민들은 돈 한푼들이지 않고 한날한시에 새 도시, 새 거리,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되였다.

건축학적요구에 맞게 잘 어우러진 소층, 다층살림집들, 생산구획과 생활문화구획으로 구분되여있는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학교와 병원,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관, 식당 등 시안의 모든 건축물들마다 자기의 특성을 뚜렷이 살리고있다.

종비나무, 봊나무를 비롯한 90여만그루의 나무와 100여만㎡에 달하는 록지로 도시의 원림화를 실현하였다.

북방의 새 도시에서는 오늘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사진 김혁철, 송대혁, 글 정기상

삼지연시의 인민들은 한날한시에 새 거리,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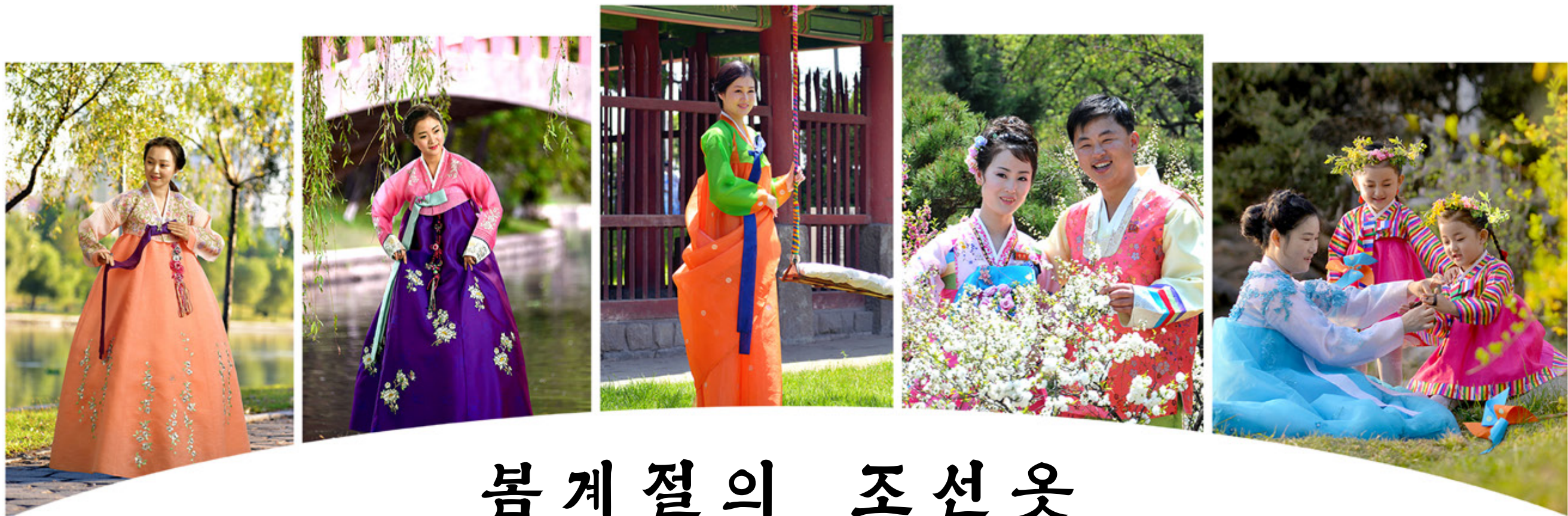
교육환경과 조건도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베개봉스키장에서

어디서나 인민들의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있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져있다.

려명거리의 불야경

사진 홍광남, 안철원

봄계절의 조선옷

봄철이면 민족옷차림을 한 조선인민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흥그럽게 한다.

특히 녀성들의 조선치마저고리차림은 가장 인상적이다.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사이에 비례차이가 있어도 불안한 느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독특한 미를 자아내는 여기에 조선치마저고리의 매력이 있다.

봄철의 대표적인 저고리형식은 물겹저고리, 박이저고리, 반회장저고리, 삼회장저고리 등이고 치마도 주름치마, 끄리치마, 다홍치마를 비롯한 여러가지가 있다.

옷의 색갈도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연분홍색이나 연두색, 연자주색, 노란색과 같은 연하고 밝은것이다.

옷무늬는 주로 조선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과 나무잎, 풀과 열매 등 식물무늬로서 은근하면서도 섬세하고 생동하다.

민족옷차림을 한 남녀로소들로 하여 이 땅의 봄계절도 더더욱 화창한듯싶다.

사진 최원철

글 최의림

전국의 학령전어린이들이 《해바라기》 상표를 단 각종 연필과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를 비롯한 학용품들을 꾁갈이 받아안았다. 주체109(2020)년 2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해바라기학용품

평양의 룡악산기슭에 지난해 10월에 준공된 룡봉학용품공장이 자리잡고있다.

공장에서는 연필, 원주필, 크레용, 수채화, 지우개, 자, 필갑 등 여러가지 학용품들이 생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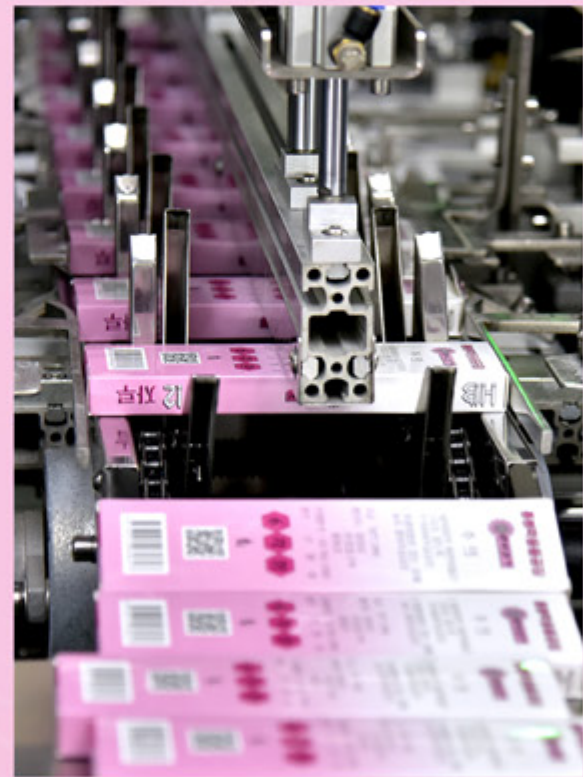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갖추어진 공장의 모든 경영활동은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다.

교육학적인 용도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생산공정들을 더욱 완비하여 학용품생산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해바라기》 상표를 단 제품들은 벌써 전국각지의 유치원생들로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좋아하고 먼저 찾는 학용품으로 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수요가 높은 어구들을 더 많이

평양시 락랑구역 전진동에는 물고기잡이 및 바다가양식을 위한 여러가지 그물과 바줄, 뗴 등을 생산하는 어구종합공장이 자리잡고있다.

공장의 부지면적은 3만 4 000여㎡이다.

생산현장들마다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공장에는 생산 및 경영활동의 과학화, 최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어 종합조종실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조종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각이한 물고기잡이방법과 어종별에 따르는 각종 그물들과 자망과 건착, 양식을 위한 여러가지 뗴들 그리고 각이한 용도의 바줄들이 생산되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열쇠로 틀어쥐고 기술혁신활동을 적극 내밀고있다.

최근에만도 전문연구단위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실끊어짐위치측정장치와 자동원료이송공급기를 새롭게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안들을 새롭게 완성하여 조업초기보다 생산량을 1.5배로 장성시켰다.

또한 국내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다그쳐 생산품의 량과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이름난 포도산지

아득히 뻗어간 포도나무들, 줄기마다 주렁진 탐스런 열매를 따는 처녀들…

사리원과수농장의 포도밭을 비롯하여 사리원시의 동남부지역에 조성된 포도밭들에서 수확철마다 펼쳐지는 광경이다.

나지막한 구릉과 야산들이 울퉁불퉁 잇달려있는 이 지역에서는 오랜 세월 밭농사가 위주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39(1950)년 8월 4일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에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수농장의 터전을 잡아주신 이후부터 이곳에서는 과수의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오늘은 전국에 이름난 과일생산기지로 되였다.

이 일대에 조성된 천수백여정보에 달하는 과수밭면적의 대다수가 포도밭이다.

하여 포도는 점차 사리원의 새 특산물로 되였으며 포도술공장도 이곳에 일떠서게 되였다.

지난해 11월 사리원포도술공장은 개건되였다.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고 무균화가 실현된 제품생산공정들이 꾸려짐으로써 공장에서는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새 제품개발을 끊임없이 다그치면서 자기 공장의 명성을 더욱 떨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벌써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우리의 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지난 2월초 어느날 평양시 대동강구역의 문수거리에 위치하고있는 옥류아동병원으로 강원도에서 온 12살 난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들어섰다.

원산시의 한 로동자가정의 자식인 안룡주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이 병원에서 자기의 병을 확진받고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였다.

자기들을 위한 전문병원임을 첫눈에 알아보아서인지 룡주는 중앙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병이 다 나은듯 명랑하고 활기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3층에 자리잡고있는 심장혈관외과를 찾아서 의사들을 만나고 입원호실로 가기 전까지도 아들의 병을 고칠수 있을가 하는 어머니의 근심은 덜어지지 않았었다.

같은 호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나서야 녀인의 마음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중에는 이미 수술을 성과적으로 받고 회복기에 있는 2살 난 어린이와 5달난 갓난아기가 있었던것이다.

점차 그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를 이루고있지만 이 과는 소아심장외과분야에서 손꼽히는 실력가집단이라는것과 한해에만도 300여건이나 되는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는것도 알게 되였다.

그후 리철진과장을 비롯한 과의 의사, 간호원들, 아니 병원안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한명한명의 나어린 환자들을 완쾌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기 위하여 치료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머니의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들에 대한 심장수술이 완전히 성공하였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수술후 갖가지 보약들과 영양제들을 쓰는 과정에 날이 감에 따라 건강해지는 자식을 볼 때면 녀인은 자꾸만 눈굽이 저려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근 한달의 입원기간을 마치면서 녀인은 말했다.

《우리 룡주가 이곳에서 웃음을 찾고 돌아갑니다. 치료비가 얼마인지는 저도 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옥류아동병원과 이곳 의사선생님들을 통하여 국가의 혜택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사진 리광성
글 강수정

평양의 4대음식

평양랭면, 평양온반, 록두지짐, 대동강숭어국은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발전하여온 평양지방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4대음식이다.

예로부터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불리울만큼 이름난 평양랭면은 메밀가루로만 누른것이다.

담담하고 쫄깃한 국수사리와 감미로운 국물 그리고 여러가지 꾸미등으로 이루어진 평양랭면을 맛보지 못하면 결코 평양에 와보았다고 할수 없다.

평양온반은 밥우에 닭고기, 버섯볶음, 록두지짐을 얹은 다음 뜨거운 국물을 부어서 낸다.

록두지짐은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는데 평양지방에서는 록두를 갈아서 거기에 남새와 돼지비계를 넣어 노르스름하게 지져 만든다.

대동강숭어국은 대동강에서 잡은 숭어로 끓이는데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 국을 대접하는것을 례의로 생각하였고 또 평양을 찾는 사람들도 이 국을 먹어야 대접을 잘 받은것으로 여길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이다.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평양랭면

대동강숭어국

평양온반

록두지짐

천연기념물

석담느티나무

황해남도의 명승지로 손꼽히는 벽성군의 석담구곡에 900여년동안 년륜을 새겨오는 느티나무가 있다.

1 100년경부터 자란것으로 알려진 나무는 석담구곡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고 력사유적들이 집중되여있는 은병(솔산이 담수에 숨어있다는 뜻)지구의 가운데로 흐르는 석담천의 기슭에 뿌리를 내리고 서있다.

나무의 높이는 27m, 뿌리목둘레는 11.6m, 가슴높이둘레는 7.8m이며 나무높이 3m정도에서부터 가지들을 뻗치면서 직경이 20여m에 달하는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오늘도 수세가 왕성하여 명승지의 운치를 더욱 돋구고있는 석담느티나무는 학술적의의도 큰것으로 하여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필

낸곳 : © 조선화보사 2020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편집 신재철 13606-208098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을밀대의 봄 사진 공유일